

# 농지연금 개선에 노후생활 보장 'UP'

### 농어촌공사, 가입연령 인하·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가입자 증가 신규가입 건수 지난해 대비 22% 증가·중도해지 건수는 23% 감소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일부 개선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보다 23%(261건) 감소했는데, 이는 농지연금 제도에 만족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

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증가, 중도해지자 감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인하했다. 가입 기준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담보 비율 농지가격 15% 미만→30% 이내)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농지소유자도 농지연

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나 전부 중도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 부담도 덜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가입 후 3년 이내에 1회에 걸쳐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올해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올 3월 말 기준 신규가입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무려 7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지급액도 증가했다. 농지연금 평균 지급액은 2020년 109만원→2021년 115만원→2022년 122만원에서 올해는 134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인하(만 60세~만 55세)의 경우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과 중도상환 횡수 제한 폐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장 농지연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영광 '귀어인의 집' 첫 입주 전국 6곳에 조성 사업 시행 기술 교육·어촌생활 체험 등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영광군 귀어인의 집에 지난 1일 첫 입주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이다.

해수부는 작년부터 전남 영광,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등 전국 6곳에서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지를 늘려 2027년까지 총 300곳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영광군 귀어인의 집은 이 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맞았다. 귀어인의 집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모색

### 김춘진 사장 '수산인의 날' 참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에서 굴과 붕장어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는 우진물산(주)을 찾아 가공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을 찾은 김춘진 aT 사장은 "통영 굴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수출 전략품목"이라며 "앞으로 수산선도조직 육성, 수산식품기업바우처 확대,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진물산은 2000년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굴, 붕장어, 피조개 등의 수산물을 일본, 미국, 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수산물 수출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식품 수출유공자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김춘진 사장은 이어 이날 통영시 영문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의 수산물 판매 업체인 (주)우진물산을 찾아 굴 가공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산인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aT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31억38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당기순이익 129억 '흑자'

### 양산 체제 1년 만에 성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해 1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0일 정기 주주 총회를 열고 양산 체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2021년 9월 양산체제에 들어간 캐스퍼는 그 해 1만2100대, 지난해 5만대 등 누적 생산 6만2100대를 달성했다.

GGM은 주요 사업 성과로 5만대 생산 목표 달

성, 최고 품질 확보, 안전한 상생 일터 기반 조성, 품질 환경 안전 등 3대 분야 ISO 인증 획득, 품질 경영 대상 등을 꼽았다.

올해 사업추진 과제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차질 없는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최고 공정 품질 및 부품 품질 실현, 안전한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 달성, 소통 협력의 상생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4만5000대 생산 목표 달성률 98%, 합격률(95%), 출고 직행률(92%) 90% 이상 달성으로 잡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여수출신 농협 임직원, 여수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달 30일 여수출신 농협 임직원 30여명과 여수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여수시에 기부금 55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여수출신 농협 임직원인 정종관(NH농협은행 서울중앙사업부장), 정인호(NH농협은행 본부장), 김석기(남해화학 부사장), 권용대(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장) 등 재경농협여수항우회(회장 강문철, NH농협은행 준법감시부 부장)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여수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됐으며, 기부금 답례품은 여수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다시 전달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농협을 이끌고 있는 여수지역 항우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농협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산단공 광주본부, 산업단지 제조혁신 비즈포럼 개최

### AI데이터 활용 방안 등 공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최근 자율형(6개)·디지털(2개) 산학연합체 회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권 산업단지 제조혁신 비즈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비즈포럼은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제조사업과 연계와 AI 데이터 활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국가산업단지 유치 선정에 따른 미래자동차 산업동향과 광주시 추진사업 현황을 안내하는 등 산업기술 동향과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총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산학연관 네트워크에 기반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산업계에 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디지털

탈경제, ESG경영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업·기술·산업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행사로 꾸준히 마련해왔다.

황상현 본부장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현,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 활동과 기업 투자지원 및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산업단지와 광주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든든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